

2021. 10
Vol.59



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¹⁾

김영한 선임연구위원

이유진 선임연구위원

개요

- 조사목적** ▶ 청소년 혐오표현 실태 파악을 위해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도, 혐오표현 문제의 사회적 변화,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표현, 소수집단에 대한 가해수준, 혐오표현의 생산 수단, 혐오표현의 생산자 및 가해자, 혐오표현의 대응 과제, 혐오표현에 의한 피해 행위, 혐오표현의 동기 등 9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.
- 조사대상** ▶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2020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,063,251명으로 초등생 1,357,865명(33.4%), 중학생 1,294,359명(31.9%), 고등학생 1,411,027명(34.7%)임. 조사표본은 6,000명(초등학교: 2,005명, 중학교: 1,911명, 고등학교: 2,084명)이며, 이중 유효한 설문응답자는 5,914명으로 나타남.
- 조사방법** ▶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
- 조사기간** ▶ 2020년 7월 말 ~ 9월 말

1)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과제인 '청소년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'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.

1 우리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도 / 심각성

■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도를 보면 아직까지 일부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혐오현상이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-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11.3%이나 타인종에 대한 혐오는 22.1%로 2배정도 높게 나타남.
- 우리사회의 젠더갈등 문제인 성소수자(27.1%)나 페미니스트(30.5%)에 대해서는 다른 소수집단의 혐오표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.
-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30.1%와 25.1%정도로 혐오현상이 높게 나타남.

표 1 우리사회의 대상별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도

(단위: %)

구분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이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	무응답
외국인	47.0%	24.7%	16.4%	7.4%	3.9%	0.6%
타인종	33.7%	20.6%	22.9%	17.5%	4.6%	0.7%
타종교	37.8%	24.7%	21.2%	12.4%	3.1%	0.8%
성 소수자	30.6%	18.3%	23.1%	18.7%	8.4%	0.8%
장애인	38.0%	21.8%	20.9%	15.0%	3.7%	0.7%
페미니스트	31.3%	15.7%	21.5%	16.9%	13.6%	1.0%
다문화가정	45.4%	26.5%	18.2%	7.5%	1.8%	0.6%
청소년	28.0%	17.6%	23.6%	20.7%	9.4%	0.6%
노인	31.8%	19.5%	22.9%	18.4%	6.7%	0.6%
경제수준별	57.6%	25.4%	12.4%	3.1%	0.9%	0.6%
직업별	61.2%	23.9%	11.1%	2.4%	0.8%	0.7%
학벌	50.3%	22.1%	15.9%	8.4%	2.7%	0.6%
출신지역	51.5%	22.3%	16.3%	7.0%	2.3%	0.6%

■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범죄청소년 혐오가 39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. 이는 우리사회가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 대해서도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짐.

- 다음으로 성소수자 문제 32.8%, 페미니스트 34.1%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장애인 혐오가 20.7%로 나타남.
- 또한 해외이주 노동자와 국내거주 재외교포집단에 대한 혐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.

표 2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심각성

(단위: %)

구분	전혀 심각하지 않음	별로 심각하지 않음	보통이다	심각한 편	매우 심각함	무응답
타인종	24.1%	25.0%	32.0%	14.2%	3.7%	1.0%
타종교	25.4%	26.1%	32.7%	11.3%	3.4%	1.1%
성소수자	20.0%	16.1%	30.0%	21.1%	11.7%	1.0%
장애인	27.1%	22.1%	29.0%	14.2%	6.5%	1.1%
페미니스트	22.0%	15.0%	27.6%	18.8%	15.3%	1.3%
다문화가정	33.0%	26.1%	28.4%	8.1%	3.3%	1.0%
노인	32.2%	24.7%	27.8%	9.9%	4.4%	1.0%
청소년	33.9%	24.9%	27.9%	8.4%	3.9%	0.9%
빈곤층	31.1%	23.4%	29.0%	11.2%	4.1%	1.1%
출신지역	36.6%	23.6%	26.9%	8.0%	3.9%	1.0%
해외이주 노동자	30.8%	23.0%	28.6%	11.8%	4.6%	1.2%
국내거주 교포 집단	27.9%	23.2%	29.6%	12.9%	5.2%	1.1%
근로청소년	32.6%	24.7%	29.5%	8.2%	3.8%	1.2%
범죄청소년	15.6%	14.1%	29.9%	23.6%	15.7%	1.1%

2 혐오표현이 미래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

■ 우리사회의 혐오표현이 미래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청소년 대부분 항목에서 30%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.

- 혐오표현 문제가 우리사회 전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40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추후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하거나, 더 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, 세대 간 갈등과 지역 간 갈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. 즉, 혐오표현 문제는 미래사회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은 더욱 커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짐.
- 특히 중요한 것은 혐오문제를 극대화 하고, 이를 이용하여 집단화 · 조직화하는 세력이 확대 재생산 될 것이라는 의견이 34.1%로 청소년은 혐오를 이용하는 세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.

표 3 미래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영향력

(단위: %)

구분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이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	무응답
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	13.8%	16.3%	34.3%	25.9%	8.4%	1.2%
사회전반으로 다양화	13.4%	14.5%	30.6%	30.4%	10.0%	1.0%
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	15.4%	16.4%	29.4%	27.4%	10.3%	1.1%
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강화	15.1%	15.6%	32.4%	25.9%	9.8%	1.2%
혐오문제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의 확대	16.4%	15.8%	32.6%	24.3%	9.8%	1.2%
더 큰 개인의 자유 침해 확대	16.7%	16.1%	30.4%	24.0%	11.6%	1.1%
자유로운 민주적인 의사결정 침해 확대	17.8%	16.9%	32.5%	21.8%	9.8%	1.3%
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	18.4%	15.5%	31.4%	22.0%	11.6%	1.1%
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	19.4%	17.3%	34.2%	19.3%	8.6%	1.2%

3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가해 수준

■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서 비난 - 모욕 - 차별 -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혐오가해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에서 아직까지 편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, 다음으로는 차별로 나타났음.

- 혐오가해 수준 중 편견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50%이상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, 범죄 청소년·페미니스트·성소수자 집단에 대해서는 30%대를 보이고 있음. 종교에 있어서는 편견이 44%로 나타났으나 54% 이상이 사실적 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혐오를 가한다고 응답 함. 그만큼 우리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.
- 혐오가해 수준 중 비난은 범죄청소년, 페미니스트, 성소수자, 타종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모욕은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.

표 4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가해 수준

구분	편견	비난	모욕	차별	폭력	무응답
타국적 외국인	55.7%	8.1%	6.0%	26.4%	0.9%	2.9%
타인종	52.0%	8.9%	7.2%	27.8%	1.0%	3.0%
타종교	44.0%	26.6%	10.1%	15.3%	0.8%	3.2%
성소수자	37.4%	25.1%	14.7%	17.1%	2.5%	3.3%
장애인	46.2%	9.2%	9.6%	29.8%	2.2%	3.0%
페미니스트	32.3%	31.1%	14.3%	14.7%	4.2%	3.3%
다문화가정	55.8%	7.6%	7.9%	24.7%	0.9%	3.1%
노인	51.2%	15.8%	13.0%	14.5%	2.6%	2.9%
청소년	53.7%	15.9%	9.8%	14.2%	3.3%	3.0%
빈곤층	48.2%	12.6%	13.4%	21.1%	1.5%	3.2%
타지역	52.4%	13.9%	10.6%	18.9%	1.0%	3.2%
해외이주노동자	51.1%	13.8%	9.3%	20.8%	1.8%	3.2%
국내거주 교포 집단	49.6%	12.0%	9.5%	23.9%	1.8%	3.1%
근로청소년	55.4%	16.1%	9.7%	13.7%	2.0%	3.1%
범죄청소년	30.9%	31.2%	13.7%	13.1%	8.0%	3.2%

- 혐오가해 수준 중 차별가해는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타국적 외국인, 타인종, 해외이주노동자, 국내거주 교포집단, 다문화가정, 장애인과 빈곤층에 대해 높게 나타났음.

4 혐오 및 차별 표현의 생산 및 가해 장소/가해자

■ 우리사회에서 혐오 및 차별 표현을 주로 생산하고 가해하는 장소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74.4%와 신문, 방송 등 대중매체 9.4%로 나타남.

- 이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매체 이용 수준 증가와 동일하게 혐오 및 차별표현에 대한 접근성도 주로 인터넷, SNS, 휴대폰 등의 온라인 사용매체를 통해 나타남을 알 수 있음. 따라서 혐오표현과 관련된 방안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련해야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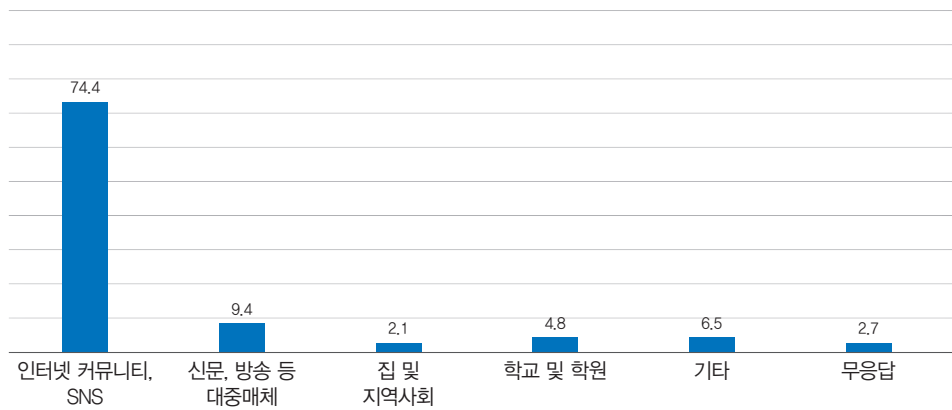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장소 (단위 %)

- 또한 혐오 및 차별 표현을 누가 생산하고 주로 가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접촉도가 높은 친구들이 20.7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대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언론인은 16.4%, 정치인은 16.3%로 나타나 언론인과 정치인이 혐오 및 차별 표현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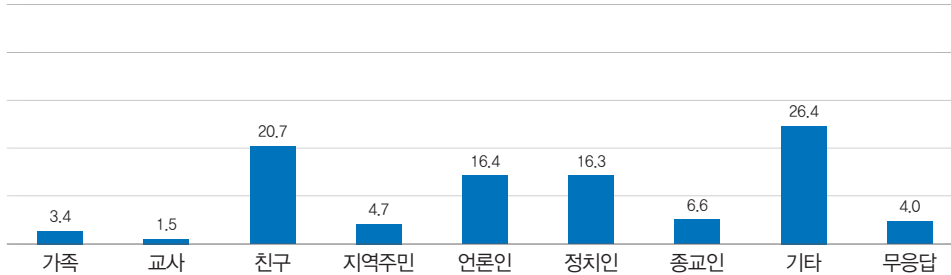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(단위 %)

5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영향

■ 청소년의 혐오표현 및 차별적 행위에 따른 정서적, 행동적 피해가 전반적으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, 특히 개인의 성향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.

- 단순빈도를 보면 “그렇다”와 “매우 그렇다”를 합한 동의비율은 “흥분감과 분노(35.6%)”가 가장 많았으나, “개인적으로 저항(25.1%)”한 경우와 “위축감을 느끼고 침묵(22.8%)”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, “주변에 알리고 공동 대응(19.1%)”한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.
- 심리적 문제의 경우 이러한 피해가 가출, 자해, 자살 등 더 큰 문제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음.
- 대응부문에 있어도 공동대응이 14.3%인 반면에 개인저항이 19.1%로 높게 나타나 현재의 혐오 및 차별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피해자가 지고 있으며,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지지가 매우 낮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뢰감이 없다고 볼 수 있음.

표 5 혐오 및 차별 표현으로 피해 영향

(단위: %)

구분	1. 전혀 그렇지 않다	2. 그렇지 않다	3. 보통 일상과 같아	4. 그렇다	5. 매우 그렇다	9. 무응답
자괴감과 무력감	34.6%	17.9%	23.0%	18.3%	4.1%	2.1%
공포감과 패닉	37.7%	19.4%	24.9%	12.7%	3.1%	2.2%
흥분감과 분노	28.2%	13.9%	20.1%	27.1%	8.5%	2.2%
불안감과 우울	34.9%	16.5%	24.4%	17.3%	4.7%	2.2%
위축감과 침묵	34.6%	17.0%	23.4%	18.4%	4.4%	2.3%
가해자 및 가해 장소 회피	34.6%	15.3%	23.2%	19.3%	5.5%	2.2%
개인저항	28.3%	16.0%	28.4%	19.1%	6.0%	2.2%
주변공유 및 공동대응	29.8%	18.8%	30.0%	14.3%	4.8%	2.3%
외출 및 대인관계 회피	47.6%	18.5%	22.7%	6.7%	2.3%	2.1%

6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

■ 청소년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.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음.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음.

- 혐오표현 대응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단순빈도를 보면 ‘필요하다’와 ‘반드시 필요하다’를 합한 동의비율은 규제강화(61.3%),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(67.5%), 혐오표현 개선방법 홍보(63.1%), 혐오가해자 사법처리(59.4%), 학교내 혐오 및 차별 방지 제도화(62.4%),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제시(64.9%),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(64.3%) 등 대부분 60% 이상으로 나타남.

표 6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

(단위: %)

구분	1. 전혀 필요 하지 않다	2. 필요하지 않다	3. 보통이다	4. 필요하다	5. 반드시 필요하다	9. 무응답
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	5.4%	4.8%	27.1%	40.8%	20.5%	1.4%
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교육	4.7%	3.9%	22.5%	40.4%	27.1%	1.4%
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한 개선방법을 홍보	5.0%	4.5%	26.0%	38.8%	24.3%	1.4%
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	5.3%	6.0%	27.8%	34.1%	25.3%	1.5%
학교 내 혐오 및 차별 방지 내용 제도화	4.8%	4.6%	26.7%	38.0%	24.4%	1.5%
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기준을 제시	5.1%	4.2%	24.4%	37.5%	27.4%	1.4%
신문 방송 등 언론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	5.0%	3.2%	26.0%	36.3%	28.0%	1.5%
외출 및 대인관계 회피	47.6%	18.5%	22.7%	6.7%	2.3%	2.1%